3년 걸린 오리진흙구이

(눅22:24-34)

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3년 걸린 오리진흙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3년 걸린 오리진흙구이'
여러분, 오리진흙구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이들 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리를 잡아서 내장을 긁어내고 그 속에 갖은 잡곡을 집어넣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재를 섞어

서 호일 같은 걸로 쌉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 두껍게 진흙으로 덧입힙니다.
그 덧입힌 진흙을 가마에 넣고 450도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진흙구이는 웬만한 집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떤 오리진흙구이 집들은 기업이에요, 기업.
진흙구이를 굽는 가마가 열댓 개씩 있고, 많을 때는 하루에 200개씩 오리진흙구이를 구워낸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요즘 한 마리에 4, 5만원씩 하는데.

자, 이렇게 오리진흙구이가 450도에 세 시간은 구워야 제대로 먹을 만하게 구워져 나오는데, 예수님은 3년 걸려서 오리진흙구이를 구워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3년 걸려 구워내신 오리진흙구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24절에서 본 것처럼 또 다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게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늘 서로 견제하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께 더 어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3년 내내 쫓아다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특이한 거예요.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진전해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예지력에 의해서 준비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3년 동안에, 이제 내일이면 그 정점에 달하는 십자가사건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가고계시는 길에 대해서 몰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동상이몽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게 다가 아닐 것이에요, 이들이 누가 더 크냐 라는 것 때문에 다툰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해서 왕국을 세우실 때, 누가 더 예수님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자기의 능력과 달란트를 점검해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서로 어필하며 내가 더 크다고 다투며 싸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 때마다 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호되게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그냥 권면 정도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일관해나가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communication의 능력에 대해서.
뭘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텐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하시고,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의 주권자들은 그리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몇 번째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communication의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3년 동안 가르치면 다 깨달았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자, 설득을 못 시켜서가 아닐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고 묵인하시고 끌고 가실까요?
또, 기이한 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에 이어서 곧바로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와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누가는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겁니다, 지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기어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34절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배반과 부인의 차이, 언뜻 듣기에 배반은 굉장히 적극적인 결별이고, 부인은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모른다고 했으니 좀 죄가 덜할까요?
의도성이 들어있는 배반과 무서움과 두려움에 몰려서 부인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무서운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고자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마음이 잘못 된 것을 아시면서 십자가 직전까지 그들을 끌고 가시는지…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깊게 설득시켜서 기어코 알아듣도록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유다의 배반과 사도들의 크고자 다투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열 한 사도들은 예수님께 취직을 한 겁니다.
취직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벌이실 판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나가실 때 한 자리 하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취직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가룟유다는 거꾸로 자기가 구상한 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예수님을 고용한 겁니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회사고, 가룟유다는 자기가 회사의 오너가 되어서 예수님을 고용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고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가룟유다는 틈을 타서 그 등에 칼을 꽂고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고용한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능을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영국의 맨유 축구팀이 서른이 넘은 박 지성 선수를 하위리그 축구팀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거꾸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으로 생각했고, 판을 벌이게 되면 그 판의 임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 판에서 예수님을 위해 어떤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유다 쪽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든 내 인생의 구도 안에 예수님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위험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판 벌이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대를 갖고 쫓아오는데 왜 3년 동안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게 무슨 얘깁니까?
3년 동안의 동고동락이,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이 이 제자들에게 호의호식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럽기만 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2천 년 전의 그들의 문화와 역사 속으로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현재 지도자들인 유대 지도자들과 항상 다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명을 달고 다녔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러한 권세가 있으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이 판을 벌이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실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는 회의와 의심을 하게끔 하기에 충분한, 그런 3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세에 몰리고 예수님께서 임금 자리에 설 수 있을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꿈을 키웠어요.
어떤 꿈이냐, '내가 반드시 예수님이 판을 벌이면 한 자리를 할 거야!'
이 꿈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3년 동안 참아내면서 동고동락했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잘못된 생각인 줄 아시면서 놔두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흙구이를 완성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판을 벌일 때,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고 했던 그 기대감, 그게 바로 진흙입니다.
거기에 모든 시험, 3년 동안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중들에 의해서 수세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시험을 받으면서 열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꼭 붙어가지고 이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떨어뜨리려고 애를 썼으나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었던 것이에요.
가룟유다는 아예 입장이 달라, 예수님을 고용하는 오너 입장에서 자기가 벌이고 싶은 판에다 예수님을 끌어들이려는 것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이 벌이실 판에 자기들이 취직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었고, 그들이 붙어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판을 벌이시면 한 자리 하겠다는 꿈이 진흙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익어간 오리는 그러면 뭡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속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벌이는 판에서 한 자리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꿈속에서 익어가고 있는 오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잘못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을 끌어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오리가 뭡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에 대해서 사랑이 가고 정이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 반드시 한 자리 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며, 호의호식하지도 못하고 영광스럽지도 못한 많은 순간들을 다 참아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마치 회사가 어려울 때, 내가 월급 받으려고 취직했지만, 어려운 3년을 지나면서 회사가 망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회사가 망한 거죠.
망해놓고 보니까 3년 그 어려움을 같이 하는 동안 사장님과 정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그 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났더니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고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주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판을 벌일 일도 큰 자리 하나 얻을 일도 없지만, 베드로가 웁니다.
왜 울어요? 기껏 부인해놓고 왜 울어요?

3년 동고동락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익어갔던 주님에 대한 정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오리가 익어간 것이에요.
진흙에 열이 가해지는 동안에,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꿈인 진흙은 십자가가로 다 깨져버립니다.
마치 오리진흙구이 집에서 450도로 가열한 다음에 그 진흙은 깨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깨버리십니다.
남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과 사랑, 하나 남았습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 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그 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고리로 엮어지듯이 엮어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함께 그분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분을 사랑했으니까, 그분을 좋아했으니까.
마치 애인이 미국에 가서 뉴욕에 거한다고 하면 온통 마음이 다 미국에 가있는 그런 것처럼.
사랑할 때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이 마음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열이 당신에게 가해질 때 그 열을 같이 쐬면서 제자들이 견딘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한 자리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 놔두신 것은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노라보면 당신에 대해 사랑이 생기고 정이 생길 테니까.
그 사랑과 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다 엮어서 갖고 가시려고 정과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늘로 빠져나간 자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몸으로 만나지 못해요.
제자들이 공생애 끝에 만난 십자가를 우리는 처음부터 십자가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과 정이 들겠습니까?

바로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공생애와 주님의 십자가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주님과 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정이 들어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음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룟유다의 위험에 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요.

우리가 만든 인생의 구도에 예수님을 고용하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내면서, 내가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같이 부활했고, 주님이 승천할 때 같이 승천했다고 하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 공항 길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계신 그곳에 내 마음도 따라갈 수 있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가신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마음이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하늘을 느끼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앉힌바 되는 사건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에요.

제자들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한 번 예수님 때문에 잘살아보자는 잘못된 기대를 묵과하시고

끌고 가셨던 이유는 예수님과 사랑과 정으로 엮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 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에 대하여 세상의 그분의 기능과 용도와 그분의 능력 다 제거해놓고, 순수하게 그분의 인격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서 지금 우리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과 교통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내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정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과 정,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흙구이처럼 가열되면서 그 사이에 익어갔던 오리가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처럼 인격체 되시는 주님과 사랑과 정으로 마음이 서로 묶이게 하여 주셔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 우리 마음이 오늘도 하루 종일 하늘을 향해서만 방향이 고정되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